

사적 대인관계에서 행동의 원인과 이유의 설명

이경성 · 한덕웅 · 강혜자

성균관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사적 대인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원인과 이유를 설명할 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의 발생 빈도를 알아내고, 대표적 원인과 이유의 설명 용어들이 구성하는 차원을 알아내고자 하였다. 먼저 사적 대인관계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을 59개 일화로 제시하여, 일상적으로 이 행동이 일어난 원인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들을 자유 반응으로 얻어서 내용 분석하였다. 남녀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 자료의 분석 결과, 조사 대상의 성별, 대인관계 유형 (동성/이성), 및 관계의 진전 정도 (초기/후기)에 따라서 원인과 이유 설명으로 사용된 빈도가 서로 다른 내용도 많았다. 다음으로 위의 분석 결과, 사용 빈도가 높고, 의미가 독립적이며, 각 설명 범주를 대표한다고 판단되는 70개의 원인과 이유들을 66명의 대학생에게 용어의 유사성에 따라서 10개 내외의 군집으로 분류하도록 하여, 군집분석과 다차원분석 (ALSCAL) 하였다. 두 기법으로 해석이 가능한 세 차원 (stress=14%)을 얻었는데, 제 1차원은 좋은 태도-나쁜 태도, 제 2차원은 사람-자극 혹은 상황, 제 3차원은 행위자-관계 (양자)로 해석되었다. 이 결과가 시사하는 점을 기존 연구 결과와 관련지워서 간략히 논의하였다.

교우, 부부, 부자, 형제, 연인 등 다양한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한 행동이나, 자신이 상대방에게 한 행동,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같이 한 행동의 귀인은 이후의 행동이나 정서 경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다.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귀인 (attribution)을 단지 행동의 원인으로 한정할지, 이유 (reason)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일지 학자들 간에 의견이 서로 다르다 (Hewstone, 1989, pp.34-35; 차재호, 1986, pp.88-95). 지금까지 귀인 연구에서는 행동을 설명하려는 시도로서, 행동의 원인 귀인에 초점을 두고 이유의 설명을 소홀히 하였으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원인보다 목적이나 이유로 설명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Buss, 1978). 특히 대인 과정에서

는 사건을 독립된 사건 자체로 보기보다는 연속되는 행동의 시계열이나 사람이나 관계에 대한 평가 등이 전제된 측면에서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해명이나 정당화 등을 포함하는 설명 형태인 이유가 더 흔하고 중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필자들은 대인관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과 이유를 포괄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까지 대인관계에서 귀인을 다룬 연구들에서는 개인 행동의 귀인을 연구하기 위하여 마련한 귀인 범주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 행동 설명을 위하여 제안된 귀인 범주나 차원에 관련된 문제점들은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었다 (예, Kruglanski, 1975; Weiner, 1985; 차재호, 1986; 차재호와 나은영, 1986;

Hewstone, 1989). 필자가 보기에 개인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안된 이론들은 원인의 범주들이나 차원들이 서로 잘 조화되지 못하며, 중요한 원인 귀인의 차원에 대해서도 견해가 불일치된다.

더우기 개인 행동과 달리, 대인 행동에 대해서는 Kelley (1967)처럼 사람, 자극, 상황으로 단순하게 범주화해서는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대인 상황에서는 사람 범주에 행위자와 타인이 포함되며, 타인이 물적 자극과 마찬가지로 자극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상황 자체도 제 3자가 우세하게 영향을 미치는 인적 상황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개인 행동 상황과 대인 행동 상황에서 귀인의 성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인 과정에서도 대체로 개인 행동에 적합한 귀인 범주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타당성 문제가 발생된다.

귀인 범주 중 내외 귀인 차원을 예로 들어 이 타당성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 보자. 행위자의 관점에서 보면 상대방 귀인은 개인 수준에서는 외적이지만, 관계 수준에서 보면 관계가 분석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내적이라 볼 수 있다. 관계 수준에서는 관계 밖의 요인들로 귀인될 때 외적 귀인이 된다. 따라서 대인 과정에서의 귀인 접근은 개인 수준과 관계(양자) 수준을 모두 고려하여, 행위자, 상대방, 관계, 관계의 범주로 구별하는 방식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이는 관계를 이루는 두 사람 모두가 원인이 되는 관계 귀인 (relationship attribution) 범주가 대인관계의 귀인 범주에 포함되어야 함을 지적한 Fincham (1985)의 제안과도 일치한다. 또한 대인관계에서는 개인에게 지향되어 있는 귀인 (예, 나는 믿을 만하다, 상대방은 거짓말장이다) 외에 Newman (1981)이 대인 귀인 (interpersonal attribution)이라 지칭한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귀인 (예, 나와 상대방이 싸웠기 때문이다)도 많으며, 이러한 대인 귀인 범주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대인 과정의 귀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원인 범주들을 고려하여 행동의 원인과 이유의 설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인 상황에서 일어난 행동의 원인 설명에 내재된 귀인 차원을 알아보기 위한 국외 연구로는 Orvis, Kelley와 Butler (1976)의 연구와 Passer, Kelley와 Michela (197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Orvis 등 (1976)은 친밀한 젊은 쌍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귀인 갈등, 즉 인과 귀인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41쌍의 젊은이들에게 자신과 상대방이 서로 다른 설명을 하는 행동의 예와 그 설명들을 적게 했다. 이를 내용 분석한 결과, 귀인 갈등을 보이는 13개의 중요한 원인 범주들을 가려냈다. 이 범주들 중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혹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태도 등 대인 귀인 범주에 속하는 원인 설명들도 귀인 갈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들로 지적되었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양자 관계에서 두 사람 모두가 원인이 되는 관계(양자) 귀인 범주에 속하는 원인 설명들은 지적되지 않았는데, 이는 이 연구가 행위자와 상대방 두 사람의 원인 설명의 차이를 다루는 연구였기 때문인 듯하다. Orvis 등의 연구는 실제 대인관계를 이루고 있는 귀인자에 의해 얻어진 인과 구별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처럼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귀인을 자유 반응으로 얻는 연구들은 조직화된 개념적 틀로 묶어서 해석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서의 귀인을 조직화된 틀로 설명하기 좋은 한가지 방안은 귀인 요인들을 한정된 차원들로 묶어서 정의하는 방법이다.

Passer 등 (1978)도 이 점에 착안하여, Orvis 등의 연구에서 자유 반응을 통해 얻어진 대표적 귀인 용어들을 사용하여, 대인관계에서 귀인에 내재된 차원들을 알아보는 연구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부정적 행동을 한 행위자와 그 행동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상대방이 평정한 13개 원인들의 유사성 자료를 다차원분석하였다. 그 결과, 행위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정적 태도-부적 태도 및 행위자의 의도-비의도 차원에서,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행위자에 대한 정적 태도-부적 태도 및 행위자의 특성-상황 또

는 상태 차원에서 부적 행동을 추론함이 확인되었다.

이 두 연구는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일상적 인과 추론을 할 때 사용하는 귀인 요인들과 이 귀인 요인들에 내재된 차원을 실증적으로 알아보고자 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Orvis 등의 연구에서 친밀한 대인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써 자신의 관계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묘한 귀인 갈등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Harvey, Wells, & Alvarez, 1978), 이 연구 결과는 불만족한 조건에만 해당되는 귀인 요인이 우세하게 나타났을 수 있다. 또한 Passer 등의 연구는 Orvis 등 (1976)의 연구에서 확인된 13개 범주들 중 11개 원인 범주로부터 13개 원인을 선정해서 사용했는데,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Orvis 등의 연구는 귀인 갈등 상황에 한정해서 원인들을 추출하였으므로, 대인관계를 이룬 양자가 모두 인정하는 원인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자료를 사용한 Passer 등의 결과를 부정적 대인 행동 귀인의 차원으로 일반화시키기에 무리가 있다. 둘째, Orvis 등의 연구는 부정적 행동에 한정된 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황/환경이나 행위자의 선호/신념, 행동의 바람직성 등 부정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 귀인 범주들도 많았다. 그런데 Passer 등은 Orvis 등의 연구 결과를 부정적 행동의 원인으로 사용했으므로 실제로 부정적 행동의 원인을 대표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Passer 등의 연구에서 얻은 다차원분석 결과는 선정된 용어가 제한된 데서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은 대체로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귀인 갈등이나 부정적 행동 등 일부 영역에 국한된 원인 설명 체계를 다룬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에서 대인관계에서 행동 귀인을 설명하는 보다 더 보편적인 설명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귀인 과정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인 귀인 과정은 대인관계의 진전 단계와 관련된다. 즉, 대인관계의 형성 단계, 유지 단계, 해체 단계에 따라서 귀인의 성질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형성 단계에서는 관계 행동의 정보 처리를 용이하게 하고

애매함을 줄이기 위해서 신중한 귀인을 하는 반면, 유지 단계에서는 행동에 대한 귀인보다는 관계에 대한 신념을 반영하는 귀인이 이루어지며, 해체 단계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귀인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Fincham, 1985). 따라서 대인관계에서 관계의 진전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귀인 과정을 다루는 접근법은 제한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대인관계의 진전 과정에 따라서 귀인이 달라짐을 보고한 국내 연구로는 한덕웅 (1988, pp.134-136, pp.145-146)의 연구가 있다. 그는 동성의 우정 관계 진전 여부에 따라서 귀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 6개월 동안 세 시점에서 종단적 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 우정 관계가 지속된 집단에서는 양자 (혹은 관계) 귀인이나 상대방 안정 귀인이 우세하고, 진전되지 못한 경우에는 행위자 부적 귀인과 상황 귀인이 우세했다. 이 결과는 관계의 지속에 대해서 행위자 귀인이 우세하고, 비지속에 대해서는 상대방 귀인이 우세하게 나타났다는 서양의 여러 연구 결과와 불합치되는 결과이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조사된 사회 상황이 장래 지속적 상호작용이 예측되는 학교 상황이므로 우정 관계에서 장래 교류, 체면, 예의 등을 고려해서 엄격한 설명을 보고하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동양권에서 흔히 나타나는 관계 중심의 집합적 관점의 영향이나 겸양 귀인의 결과일 수도 있다. 이 연구 결과에서 시사받을 수 있듯이, 대인관계의 진전 과정에 따라서 귀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동양이나 한국 문화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만한 귀인 요인들을 검토해 보는 비교 문화적 연구가 필요하다 (한덕웅, 1985).

앞에서 지적한 관계의 진전 정도 외에, 귀인자의 성별에 따라서도 중요시하는 귀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Orvis 등의 연구 (1976)를 보면, 여성 행위자들과 남성 행위자들의 원인 설명에서 많은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여성의 행동은 환경, 사람, 무능력, 그리고 관계 불안정성에 귀

인된 반면, 남성의 행동은 행위가 가지는 직접적/간접적 결과가 좋으나 여부에 귀인되었다. 이외에 결혼, 연애 등 이성 간의 대인관계인가 교우 등 동성 간의 대인관계인가에 따라서도 행동에 대한 원인과 이유 설명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바를 정리해 보면,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행동 사건들의 원인과 이유의 전체적 조망을 위해서는 관계의 진전 정도, 귀인자의 성별, 관계의 유형을 고려해서 인과 귀인 범주들을 추출해야 하며, 이렇게 얻은 귀인 범주들로부터 한정된 차원들로 구성된 차원 구조를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점에 착안하여 대인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행동들의 원인과 이유 체계를 조직화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인관계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 관계의 당사자들의 귀인 설명들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1)관계의 진전 정도, 귀인자의 성별, 및 관계의 유형을 모두 고려하여, 대인관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행동의 원인과 이유를 설명할 때 한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귀인 용어들을 알아내고, (2)이 용어들 가운데 특히 자주 사용되는 설명 용어들이 어떠한 차원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알아내고자 한다. 이 두 과제는 연구 I과 연구 II에서 각각 다룬다.

연구 I : 행동의 원인과 이유의 기술

방법 및 절차

행동 사건들의 선정. 사적 대인관계에서 중요시하는 행동 사건들을 수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1)먼저, 한덕웅 (1982)의 대인 행동 연구에서 사용된 70개 동사들을 주축으로 하고, 이외에 2차 관계에서 중요시되는 행동들을 대학생들에게 적도록 하여 수집한 행동 동사들 가운데 중복된 내용은 포괄하고 빠진 내용을 보충한 후, 빈도 및 의미의 독립성을 근거로 연구자들이 대표적 행동 용어 59개를 선정하였다. (2)선정된 행동 용어를 사용하여 귀인이 이루어질 만한 행동 사건들을 기술한 문장을 만

들었다. 이 문장들은 A와 B의 두 사람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동적 사건들인데,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행동 사건들에는 좋은 결과를 갖는 행동 (정적인 행동)과 나쁜 결과를 갖는 행동 (부적인 행동), 및 결과의 방향이 주어지지 않는 행동 (중립적인 행동)을 고루 포함시키고, 관계의 진전 단계에 따라서 처음 만남 관계나 사귀지 얼마 안되는 관계, 친밀한 관계, 가장 친한 친구 관계 모두에서 중요한 행동 사건들과 각 관계에서 독자적으로 많이 지적된 행동 사건들을 포함시켰다.

행동 귀인 질문지. 질문지는 전체 59개 행동적 사건 기술문으로 구성되었다. 각 기술문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일화를 한 개의 문장으로 간략하게 제시한 후 (예, A는 B에게 마구 화를 내었다), 피험자에게 A와 B 두 사람 사이에서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지 A의 입장에서 원인을 3개씩 자유 반응으로 기술하게 하였다. 한 명의 피험자가 질문지 응답을 모두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도 길고, 부실한 자료가 될 우려가 있어서, 사건들을 반복하여 두 유형의 질문지로 나누었다.

조사 설계. 피험자의 성별 (남/여), 대인관계의 유형 (동성/이성), 및 관계의 진전 정도 (초기/후기)를 고려하여 2*2*2로서 8가지 유형을 만들었다. 8가지 유형은 각 조건들을 달리 설명한 지시문만 서로 다르게 변화시키고, 질문 내용은 위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8가지 유형 모두에서 동일하였다. 구체적으로 8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이 조작되었다. 즉, 피험자의 성별 (남/여)에 따라, 피험자가 남성이면 A와 B도 남성, 피험자가 여성이면 A와 B도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각 문장을 읽게 하거나 (동성 조건), 피험자가 남성이면 A는 남성이고 B는 여성, 피험자가 여성이면 A는 여성이고 B는 남성이라고 생각하고 각 문장을 읽게 했다 (이성 조건). 그리고 각각의 조건에서 A와 B는 나이가 비슷하고 사귀지 얼마 안되는 사람들이라고 명시하거나 (관계 초기), 나이가 비슷하고 사귀지 오래되는 친한 사람들이라고 명시했다 (관계 후기).

조사 대상 및 실시. 조사 대상은 서울 지역 및 전북 지역 소재 대학의 남·여 대학생 500명이었다. 질

문지는 1991년 4·5월에 강의 시간에 실시하였고, 소요된 시간은 약 60분이었다.

응답 내용의 분석. 귀인 용어의 분류 유목으로 (1) 행위자 귀인, (2)상대방 귀인, (3)관계의 귀인 (상황, 제 3자 등), 및 (4)관계 (양자) 귀인의 4개 대범주로 구분하고, 피험자들의 반응을 토대로 세부적으로 3000여개의 귀인 소범주를 만들었다. 이 때 3000여개의 귀인 소범주는 필자들이 각각 피험자들의 반응을 독립적으로 내용 분석한 후, 응답의 범주를 만들고, 분류가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합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그 빈도를 기록하였다. 그 후 3000여개의 소범주들을 의미가 유사한 원인들끼리 묶고, 그 가운데 빈도가 많은 반응들을 중심으로 귀인 범주들을 대표하는 132개의 다소 큰 범주들로 묶었다.

자료 처리. 8개 각 조건 별 (남성·동성·초기, 남성·동성·후기, 남성·이성·초기, 남성·이성·후기, 여성·동성·초기, 여성·동성·후기, 여성·이성·초기, 여성·이성·후기)로 132개 귀인 용어들의 출현 빈도가 산출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 및 논의

전반적 경향. 표 1을 보면, 사람들이 두 사람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원인과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용어는 상대방에 대한 호감 (빈도; 1045) 및 상대방에 대한 오감 (461)이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나 오감이 대인관계에서 행동을 유발시키는 가장 주된 원인이나 이유로 지각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Passer 등 (1978)의 다차원분석 결과와도 일치된다. 이 두 연구로부터 대인관계 상황에서는, 개인 행동의 귀인 상황과 달리, 내외 차원으로 언급되기 어려운 대인 귀인 범주가 행동의 가장 중요한 원인 차원으로 지각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에서 세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인 행위자의 성격 (456)은, 젊은 쌍들의 귀인 갈등을 다룬, Orvis, Kelley 및 Butler (1976)의 연구 결과에서도 가장 중요한 귀인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그들의 연구에서 행위자의 성격은 친밀한 양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행동의 인과 귀인에서 불일치를 이루는 주된 요소로

지각되었는데, 필자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행위자의 성격은 비단 귀인 갈등 상황 뿐만 아니라 대인 상황 전반에서 중요한 귀인 범주로 지각되는 듯하다.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설명 용어들은 상대방과 친해서 (381), 둘이 싸워서 (253) 등 상대방과의 관계 자체나 두 사람 모두가 원인이 되는 용어들이었다. 이와 아울러 상대방을 신뢰해서 (363),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233) 등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드러내는 많은 용어들이 중요시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로 볼 때 사적 대인관계 연구에서는 개인 행동을 다룬 일반 상황에서는와는 다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다른 학자들의 견해 (예, Newman, 1981; Fincham, 1985)나 필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대인관계에서 행동 귀인 분류에서는 기존의 내외 구분 외에, 행위자에게는 외적이지만 관계로 보아서는 내적인, 대인 귀인 범주와 두 사람 모두가 원인이 되는 관계 귀인 (혹은 양자 귀인) 범주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성별, 관계의 성질 및 관계의 깊이에 따른 차이. 표 1을 보면, 반응한 사람들의 성별에 따라서, 동성 관계인가 이성 관계인가에 따라서, 그리고 사권지 얼마 안되는 초기인가 사권지 오래된 후기인가에 따라서 행동적 사건들의 원인과 이유의 설명이 다를 수 있다. 각 변인 별로 특징적 차이점을 간략히 언급해 보기로 한다.

성별에 따른 차이.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서, 나의 성격 때문에 (남성 2위, 여성 5위), 내가 상대방을 사랑해서 (남성 10위, 여성 95위), 내가 상대방이 싫어져서 (남성 15위, 여성 43위) 등을 양자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원인과 이유로 반응한 비율이 높았다. 반면,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빈번하게 지적한 내용들로는 상대방을 돕고 싶어서 (여성 12위, 남성 46위), 상대방이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여성 26위, 남성 95위) 등이었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행동 설명에서 행위자 내적 귀인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양호 욕구나 상대 남성으로부터의 무시를 행동 설명으로 지적함을 알 수 있다. 성별에

표 1. 귀인 용어 132개의 반응 빈도 및 빈도의 순위

문항 번호	귀인요인	전체		성별(A)				관계의 성질(B)				관계의 깊이(C)			
		빈도	순위	남성 순위	여성 순위	동성 순위	이성 순위	초기 순위	후기 순위						
01.	내가 상대방을 좋아해서	1045	1	477	1	568	1	380	1	665	1	617	1	428	1
02.	상대방을 싫어하기 때문에	461	2	255	3	206	3	201	4	260	2	324	2	137	6
03.	성격 때문에	456	3	262	2	194	5	266	3	190	3	249	3	207	3
04.	상대방과 친하니까	381	4	164	5	217	2	289	2	92	14	140	5	241	2
05.	상대방을 신뢰해서	363	5	167	4	196	4	177	5	186	4	166	4	197	4
06.	둘이 싸워서	253	6	110	7	143	6	155	6	98	11	109	9	144	5
07.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233	7	111	6	122	7	69	21	164	5	138	6	95	13
08.	상대방과 함께 있고 싶어서	220	8	105	9	115	8	77	15	143	6	114	8	106	8
09.	헤어지기 싫어서	192	9	83	18	109	9	94	10	98	12	88	12	104	10
10.	상대방이 걱정되서	192	10	92	13	100	10	89	11	103	10	86	13	106	9
11.	습관(버릇) 때문에	175	11	90	14	85	14	99	8	76	22	85	14	90	14
12.	두 사람 간에 의견이 달라서	172	12	79	19	93	11	96	9	76	23	71	19	101	12
13.	친근감을 표시하려고	169	13	95	11	74	18	47	39	122	7	67	22	102	11
14.	상대방이 잘못했으므로	169	14	84	16	85	15	83	13	86	16	84	16	85	15
15.	상대방과 친해지고 싶어서	161	15	106	8	55	33	105	7	56	35	133	7	28	108
16.	나의 기분이 나빠서	160	16	74	20	86	13	71	19	89	15	77	18	83	16
17.	내가 상대방에 대해 불만을 느껴서	157	17	84	17	73	19	73	17	84	18	81	17	76	21
18.	상대방의 도움을 청하려	148	18	73	21	75	17	87	12	61	31	68	21	80	18
19.	상대방을 불신해서	144	19	66	23	78	16	58	25	86	17	90	11	54	30
20.	상대방의 관심을 끌려고	142	20	95	12	47	49	27	110	115	8	93	10	49	41
21.	상대방에게 열등감을 느껴서	139	21	72	22	67	22	75	16	64	27	85	15	54	31
22.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서	136	22	65	24	71	20	81	14	55	39	59	26	77	20
23.	상대방을 돕고 싶어서	135	23	47	46	88	12	65	23	70	25	55	31	80	19
24.	상대방을 사랑해서	134	24	102	10	32	95	28	106	106	9	20	127	114	7
25.	상대방이 싫어져서	132	25	84	15	48	43	34	79	98	13	49	38	83	17
26.	서로 돕기 위해서	128	26	61	25	67	23	72	18	56	36	65	23	63	24
27.	선약이 있어서	120	27	56	29	64	25	71	20	49	45	58	27	62	26
28.	고집스러워서	115	28	57	26	58	29	43	44	72	24	62	25	53	32
29.	상대방과의 관계가 타인에게 알려지는게 싫어서	115	29	57	27	58	31	34	76	81	20	58	28	57	29
30.	상대방이 원했기 때문에	115	30	45	48	70	21	38	57	77	21	54	33	61	27
31.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114	31	56	28	58	30	53	30	61	30	71	20	43	51
32.	화가 나서	113	32	47	44	66	24	65	22	48	48	46	45	67	23
33.	뜻밖의 선물이어서	111	33	51	34	60	27	47	40	64	28	63	24	48	42
34.	나의 자존심 때문에	109	34	52	33	57	32	52	31	57	34	47	43	62	25
35.	상대방을 만나고 싶어서	106	35	47	45	59	28	37	62	69	26	55	32	51	37
36.	상대방을 시험해 보려고	104	36	52	32	52	35	21	123	83	19	46	44	58	28
37.	장난삼아서	103	37	54	31	49	39	49	36	54	40	28	109	75	22
38.	그냥, 무심코, 별생각없이	102	38	55	30	47	50	56	26	46	49	49	41	53	33
39.	용건이 있어서	94	39	48	39	46	52	51	34	43	56	50	37	44	50
40.	소유욕	94	40	47	43	47	48	35	70	59	33	49	39	45	49
41.	상대방이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94	41	30	95	64	26	31	96	63	29	56	30	38	66
42.	상대방을 무시하기 때문에	93	42	49	36	44	54	60	24	33	88	52	35	41	55
43.	나의 부모가 상대방을 싫어해서	92	43	48	40	44	57	48	37	44	54	39	67	53	34
44.	술에 취했기 때문에	89	44	49	37	40	66	54	29	45	51	42	57	47	43
45.	상대방을 아껴서	89	45	40	58	49	41	34	77	55	38	42	56	47	44

문항 번호	귀인요인	전체 빈도 순위		성 별(A)				관계의 성질(B)				관계의 깊이(C)			
		남성 순위	여성 순위	동성 순위	이성 순위	초기 순위	후기 순위	초기 순위	후기 순위						
46.	무서워서	89	46	38	62	51	37	43	45	46	50	49	40	40	60
47.	상대방에게 화나서	87	47	35	73	52	34	46	41	41	63	36	79	51	38
48.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85	48	37	65	48	42	34	80	51	42	35	84	50	39
49.	상대방의 친구들을 좋아하므로	84	49	34	75	50	38	39	55	45	52	47	42	37	71
50.	상대방에게 실망해서	83	50	34	76	49	40	39	54	44	45	31	96	52	36
51.	상대방과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아서	83	51	41	53	42	61	23	117	60	32	57	29	26	112
52.	너무 좋은 선물이어서	83	52	35	71	48	46	34	81	49	46	52	34	31	93
53.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82	53	35	69	47	47	47	38	35	77	41	59	41	53
54.	무의식적으로	82	54	40	56	42	59	45	43	37	70	45	47	37	72
55.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서	82	55	50	35	32	94	33	84	49	43	50	36	32	89
56.	상대방이 용서를 빌어서	82	56	44	50	38	70	33	86	49	44	37	76	45	48
57.	상대방이 나에게 대한 기대가 커서	82	57	41	54	41	64	34	78	48	47	41	60	41	57
58.	혼자있고 싶어서	82	58	46	47	36	77	42	47	40	65	40	63	42	52
59.	신고하려고	81	59	33	78	48	44	42	48	39	66	28	111	53	35
60.	할일이 없어서	80	60	47	42	33	87	38	59	42	62	41	61	39	64
61.	상대방이 유능하기 때문에	79	61	43	51	36	73	50	35	29	102	45	50	34	80
62.	비싼 선물이어서	78	62	37	63	41	62	46	42	32	97	32	93	46	47
63.	상대방에게 우월감을 느껴서	77	63	48	41	29	104	52	32	25	113	30	102	47	46
64.	남의 눈을 의식해서	77	64	33	79	44	55	35	72	42	60	36	81	41	54
65.	내가 상대방에 대해 질투를 느껴서	76	65	33	81	43	58	38	60	38	67	42	54	34	84
66.	이기적이어서	76	66	48	38	28	111	54	28	22	121	40	64	36	75
67.	상대방이 믿음만한 친구라서	75	67	24	123	51	36	51	33	24	116	45	48	30	100
68.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74	68	38	61	36	78	37	61	37	72	40	62	34	81
69.	두 사람이 서로 사랑(좋아)해서	74	69	45	49	29	108	21	125	53	41	34	87	40	59
70.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어서	73	70	33	82	40	68	36	65	37	71	33	90	40	61
71.	상대방이 워낙 거짓말을 잘 하므로	73	71	32	84	41	63	41	50	32	94	35	82	38	65
72.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서	72	72	26	116	46	53	16	129	56	37	44	51	28	106
73.	친한 친구관계이므로	71	73	25	119	46	51	55	27	16	129	22	125	49	40
74.	상대방의 행동이 싫어서	71	74	36	66	35	81	38	56	33	90	35	85	36	76
75.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71	75	35	72	36	79	43	46	28	107	45	46	26	111
76.	상대방을 기쁘게 해 주려고	71	76	29	100	42	60	26	112	45	53	31	98	40	58
77.	상대방이 보기(만나기) 싫어서	71	77	29	102	41	65	28	108	42	59	36	80	34	83
78.	세상 살기 싫어서	69	78	33	83	36	74	35	75	34	82	37	73	32	90
79.	더 나은 관계 발전을 위해서	69	79	31	92	38	71	32	87	37	73	43	53	26	113
80.	부담스러워서	68	80	30	93	38	69	25	114	43	58	42	58	26	114
81.	상대방(의 행동)을 믿어서	67	81	23	125	44	56	29	103	36	75	31	99	36	73
82.	상대방이 원래 몸이 약해서	67	82	34	74	33	86	33	82	34	86	30	103	37	68
83.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67	83	27	114	40	67	32	91	35	79	37	74	30	98
84.	상대방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67	84	31	89	36	80	32	94	35	78	26	115	41	56
85.	예상 밖, 의외라서	66	85	39	59	27	116	36	66	30	101	29	106	37	69
86.	의무감 때문에	66	86	40	57	26	118	37	63	29	103	38	70	28	104
87.	상대방이 비난받을 행동을 해서	66	87	35	70	31	98	38	58	28	106	30	101	36	74
88.	상대방에게 잘해 주고 싶어서	65	88	17	131	48	45	37	64	28	105	29	105	36	77
89.	내가 관대하기 때문에	64	89	39	60	25	120	30	100	34	84	38	71	26	110
90.	상대방의 일이 자신의 일이라 생각해서	64	90	28	109	36	75	30	97	34	83	17	131	47	45

문항 번호	귀 인 요 인	전체		성 별(A)				관계의 성질(B)				관계의 깊이(C)			
		빈도	순위	남성 순위	여성 순위	동성 순위	이성 순위	초기 순위	후기 순위	초기 순위	후기 순위				
91. 상대방의 능력이 부족해서		64	91	31	88	33	90	32	90	32	98	32	94	32	86
92. 내게 없어서		63	92	31	91	32	93	30	102	33	87	33	89	30	102
93. 상대방을 위해서		63	93	29	105	34	85	28	109	35	80	25	119	38	67
94. 돈이 많아서		62	94	41	52	21	129	31	95	31	99	25	118	37	70
95.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어서		62	95	32	86	30	102	21	124	41	64	34	86	28	105
96. 내가 건강이 나빠서		62	96	29	99	33	89	30	99	32	95	22	122	40	62
97. 상대방에게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		62	97	36	67	26	119	29	104	33	89	43	52	19	124
98. 상대방이 기분 상하는 이야기를 해서		61	98	30	97	31	97	36	68	25	112	30	100	31	91
99.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61	99	32	87	29	103	23	119	38	69	28	113	33	85
100.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60	100	29	104	31	96	27	111	33	92	37	75	23	119
101. 상대방에게 잘못된 일이 있어서		60	101	28	112	32	91	35	69	25	114	25	117	35	78
102. 독점욕		60	102	24	120	36	76	29	105	31	100	26	116	34	79
103. 내가 친구가 없어서		59	103	31	90	28	110	33	85	26	111	37	77	22	120
104. 상대방이 안스러워서		59	104	32	85	27	117	33	83	26	110	31	97	28	107
105. 과거에 받은 호의의 대가로		58	105	29	98	29	105	35	74	23	119	29	104	29	103
106. 답답한 마음을 풀려고		58	106	24	121	34	83	25	116	33	93	27	114	31	94
107. 상대방이 불쌍해서		58	107	26	115	32	92	23	120	35	81	35	83	23	118
108. 자신감이 없어서		58	108	29	103	29	106	15	130	43	57	39	66	19	126
109. 상대방의 불건이 상대방이라고 생각되어서		58	109	30	96	28	113	16	128	42	61	28	110	30	99
110.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어서		58	110	36	68	22	127	22	122	36	76	45	49	13	131
111. 집이 싫어서		58	111	28	113	30	101	30	98	28	108	28	112	30	101
112. 상대방이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57	112	20	128	37	72	40	53	17	128	38	68	19	127
113. 나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56	113	26	118	30	100	41	51	15	130	34	88	22	121
114. 서로 어색해서		56	114	28	108	28	112	32	92	24	118	32	91	24	117
115. 소심해서		55	115	37	64	18	131	23	121	32	96	31	95	24	116
116. 외로워서		55	116	33	80	22	128	35	71	20	123	28	107	27	109
117. 상대방과 친하지 않아서		55	117	26	117	29	109	41	52	14	131	42	55	13	132
118. 서로 친하지 않아서		55	118	30	94	25	122	36	67	19	126	36	78	19	125
119. 고민이 있어서		54	119	19	129	35	82	32	88	22	120	22	123	32	87
120. 둘이 서로 더 가까워지려고		54	120	21	126	33	88	30	101	24	117	39	65	15	129
121. 그 장소가 좋아서		54	121	29	106	25	124	25	113	29	104	24	120	31	95
122. 그런 류의 사람이어서		54	122	40	55	14	132	35	73	19	127	38	69	16	128
123. 상대방이 이해해 주리라고 믿어서		53	123	28	111	25	121	28	107	25	115	22	124	31	92
124. 상대방에 대해 경정심을 느껴서		53	124	28	107	25	123	42	49	11	132	28	108	25	115
125. 그러고 싶어서		53	125	33	77	20	130	20	126	33	91	14	132	39	63
126. 서로 함께 있고 싶어해서		52	126	23	124	29	107	25	115	27	109	18	130	34	82
127. 상대방이 믿지 못할 내용의 말을 해서		52	127	18	130	34	84	32	93	20	124	32	92	20	122
128. 상대방으로부터 돌려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51	128	20	127	31	99	17	127	34	85	38	72	13	130
129. 심심해서		51	129	28	110	23	125	32	89	19	125	21	126	30	97
130. 두 사람이 서로 싫어져서(싫증, 권태)		51	130	29	101	22	126	15	131	36	74	20	128	31	96
131. 부모가 반대할까봐		51	131	24	122	27	115	13	132	38	68	19	129	32	88
132. 당시의 감정이 안 좋아서		43	132	16	132	27	114	23	118	20	122	23	121	20	123

따른 이러한 귀인의 차이는 Orvis 등 (1976)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서 흥미있는 문화적 차이를 시사한다. 한국의 남성들은 행위자로서 자신의 성격이나 감정을 중요한 원인으로 보는데 비해서, 여성들은 전형적인 여성 성역할과 관련된 양호 욕구나 자존심의 손상을 매우 중요한 행동의 원인으로 보았다.

관계의 성질에 따른 차이. 동성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경우에는 이성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들보다 상대방과 친하니까 (동성 2위, 이성 14위), 둘이 싸워서 (동성 6위, 이성 11위), 상대방과 친해지고 싶어서 (동성 7위, 이성 35위), 상대방의 도움을 청하려고 (동성 12위, 이성 31위),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동성 14위, 이성 39위), 선약이 있어서 (동성 20위, 이성 45위), 상대방을 무시하기 때문에 (동성 24위, 이성 88위) 등 친교 욕구나 친교의 저해 요인들을 특히 중요한 원인과 이유로 생각했다.

반면에, 이성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원인들로는 상대방을 싫어해서 (이성 2위, 동성 4위),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이성 5위, 동성 21위), 상대방과 함께 있고 싶어서 (이성 6위, 동성 15위), 친근감을 표시하려고 (이성 7위, 동성 39위), 상대방의 관심을 끌려고 (이성 8위, 동성 110위), 상대방을 사랑해서 (이성 9위, 동성 106위), 상대방이 싫어져서 (이성 13위, 동성 79위), 고집스러워서 (이성 24위, 동성 44위), 상대방과의 관계가 제 3자에게 알려지는게 싫어서 (이성 20위, 동성 76위), 상대방이 원했기 때문에 (이성 21위, 동성 57위), 상대방을 만나고 싶어서 (이성 26위, 동성 62위), 상대방을 시험해 보려고 (이성 19위, 동성 123위), 상대방이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이성 29위, 동성 96위) 등을 주로 들었다. 이로 볼 때, 동성 관계와는 달리, 이성 관계에서는 주로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나 강한 애착, 혐오, 배타성 등을 행동을 유발시키는 원인과 이유로 봄을 알 수 있다.

관계의 깊이에 따른 차이. 관계 초기에 일어난 사건들은, 관계 후기에 일어난 사건들에 비해서, 상대방을 싫어하기 때문에 (초기 2위, 후기 6위),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초기 6위, 후기 13위), 상대방과

친해지고 싶어서 (초기 7위, 후기 108위), 상대방을 불신해서 (초기 11위, 후기 30위), 상대방의 관심을 끌려고 (초기 10위, 후기 41위), 상대방에게 열등감을 느껴서 (초기 15위, 후기 31위),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초기 20위, 후기 51위) 등으로 귀인되었다. 반면에, 친밀한 관계로 진전된 후기에 일어난 사건의 경우, 관계 초기에 일어난 경우보다, 상대방과 친하니까 (후기 2위, 초기 5위), 둘이 싸워서 (후기 5위, 초기 9위), 두 사람 간에 의견이 달라서 (후기 12위, 초기 19위), 상대방을 사랑해서 (후기 7위, 초기 127위), 장난 삼아서 (후기 22위, 초기 109위) 등에 귀인하였다.

이 결과로 볼 때, 양자 관계가 성립되는 초기에는 피상적 인상에 따라서 상대방과 친해지고 싶다는지, 상대방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등의 긍정적인 의도나 상대방에 대한 오감, 불신, 열등감 등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정서·인지들로 귀인하는 듯하다. 반면에, 양자 관계가 친밀한 수준으로 한정된 후기에는 이미 관계가 진전된 상태이므로 긍정적 행동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친해서, 상대방을 사랑해서 등 상대방에 대한 호의적 정서 등을 행동의 원인으로 생각하였으며, 부정적 행동에 대해서는 일시적 상태 즉, 둘이 싸워서, 두 사람 간에 의견이 달라서, 장난 삼아서 등으로 귀인했다.

연구 II : 행동의 원인과 이유의 설명

연구 II에서는 사적 대인관계에서 행동의 귀인에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의 의미에 관해서 간략한 차원별 해석을 시도하기 위하여 다차원 구조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및 절차

대표적 원인 용어의 선정. (1)연구 I의 132개의 귀인 용어들 가운데 의미가 유사한 용어들끼리 묶어서 1차로 84개를 가려내고, (2)사용 빈도가 높으면서 범주 명칭이 될 수 있는 용어들로서, 행위자, 상대방, 대인, 양자 (관계), 관계외 귀인 범주들이 포함되도록

하여, 대표적 귀인 용어 70개를 가려내었다.

군집분석 및 다차원분석 자료의 수집. 최종적으로 선정된 70개 귀인 용어들을 카드 70장에 각각 적은 카드를 만들어서, 대학원생 및 대학생 66명에게 개인 별로 제시하고, 귀인 용어들의 의미 유사성에 따라서 10개 내외의 군집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각 분류 군집별 카드의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피험자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어떤 범주든지 1개의 카드로 범주를 만들지 않도록 주시시켰다. 피험자들이 카드를 분류하는데 사용한 범주들은 8개에서 13개였으며, 평균 10개 범주를 사용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서 얻은 자료는, 각각의 귀인 용어들을 동일한 범주에 분류한 피험자들의 수에 근거하여, Kruskal (1964) 방법으로 귀인 용어들 상호 간의 비연합 측정치를 계산하였다. 70개 귀인 용어들 상호 간의 비연합치 행렬 자료를 사용하여 ALSCAL 프로그램에 의하여 다차원분석을 하였다. 또한 결과의 해석에 도움을 받고자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여 군집분석 (cluster analysis) 하였다.

다차원분석 결과의 해석. 다차원분석 결과 해석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13개 7점 의미미분척도들에서 70개 귀인 용어들 각각의 의미를 평정토록 했다. 이 조사에는 남녀 대학생 150명이 참가하였다. 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로 13개 의미미분척도 각각에서 70개 용어에 대한 척도치들의 중앙값을 구했다. 13개 의미미분 척도의 중앙값을 준거 변인으로 하고, 각 차원에서의 70개 귀인 용어들의 좌표를 예인 요인으로 중다회귀 분석하였으며, 회귀 계수를 토대로 각 차원의 축을 그리고,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군집 분석의 결과

군집분석 결과의 Dendrogram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을 해석해 보면, 가장 상위 위계에서는 선악(좋다-나쁘다)의 귀인 요인들로 두 군집을 이룬다. '나쁘다' 군집은 다시 사람과 자극의 두 하위 군집으로 나뉜다. 사람 군집은 행위자와 행위자 이외 사람으로 구별되는 두 하위 군집들로 이루어져 있다. 대체로 행위자 군집에는 내가 기분이 나빠서, 내가 상대방에

게 열등감을 느껴서 등과 같은 부적 감정과, 능력·성격 등의 안정적 요인들이 포함된다. 행위자 이외의 사람들 군집은 다시 상대방 군집과 양자 관계에서 부적 요인들에 관한 군집으로 나뉜다. 상대방 군집은 대체로 상대방의 잘못이나 안정된 특성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자 관계에서 부적 요인들에는 둘 상호 간의 부적 감정과 자라온 환경·성격·의견차, 그리고 피상적 관계 등이 포함된다. 한편, 자극 군집도 '나쁘다' 군집의 하위 범주에 속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일 자체가 어려워져서,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등의 원인들이 정적 의미보다 부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듯하다. 또한, 이 군집에 포함된 운, 장소, 시간, 돈 등은 반드시 '나쁘다'는 속성을 지닌다고 볼 수 없으나, 사람들이 이 원인들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대체로 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듯하다.

반면에, '좋다' 군집은 사람 군집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행위자의 호감, 양자 관계에서 상호 간의 호감, 그리고 상대방의 희망이 포함된다. 여기서 행위자의 호감은 다시 대인 귀인 범주에 속하는 상대방에 대한 행위자의 관심이나 호감과, 행위 그 자체에 대한 호감으로 나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군집분석을 사용했을 때 한 원인이 여러 지각 차원에 동시에 포함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완전한 독립과 대칭을 이루지는 않지만, 대체로 선악 군집, 사람(행위자·상대방·대인·관계/양자) 군집, 자극 군집으로 분류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다차원분석의 결과

귀인 용어들 간의 비연합 점수 행렬을 ALSCAL로 처리하고 3차원까지 해석했다. 3차원까지 추출했을 때 stress는 14%이고, 설명 변량은 83%였다 (1차원; stress=39%, $R^2=55\%$, 2차원; stress=23%, $R^2=72\%$). 다차원분석 결과에 따라서 귀인 용어들의 3차원 좌표치들을 제시하면 표 2와 같고, 이 결과를 각각 1-2차원, 1-3차원, 2-3차원 좌표치로 그리면 그림 2, 3 및 4와 같다.

표 2. 다차원 분석의 결과

순서	귀인 용어	차			순서	귀인 용어	차		
		1	2	3			1	2	3
1	내가 기분이 나빠서	1.0745	-1.1049	1.2435	36	나의 의무감 때문에	-4.001	.7961	1.3917
2	내가 상대방을 좋아해서	-1.7920	-6518	.1832	37	내가 상대방을 신뢰해서	-1.6110	-3.7990	1.1555
3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1.0590	-1.6110	-.0219	38	상대방이 나에게 기대가 커서	-.3317	-1.1657	.7090
4	둘이 서로 함께 있고 싶어서	-1.5394	.4861	-1.1574	39	두 사람이 서로 친해서	-1.6228	-.0312	-.0484
5	공간이 있어서	-.3700	1.8611	.0208	40	장소 때문에	.7170	1.9147	.0975
6	내가 상대방이 아닌 다른 일로 화가 나서	.7598	.7169	1.0392	41	나도 또르게 반응적으로/무의식적으로	1.6633	1.4840	.9688
7	내가 상대방을 사랑해서	-1.7974	-.5991	.1833	42	내가 상대방을 싫어해서	9.324	-1.4133	.2931
8	상대방의 습관 때문에	1.5692	-.3353	-.3754	43	상대방이 원해서	-1.3412	-.4850	-.5555
9	두 사람의 의견이 달라서	1.0954	-.3928	-1.3528	44	나와 상대방 두 사람 간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	-1.3666	.2344	-.5467
10	뜻밖이었기 때문에(우연)	1.1287	1.8561	-.3997	45	만나서 함께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5976	1.4568	-.7808
11	나의 능력 때문에	.1890	.5477	1.6366	46	상대방의 감정이나 기대를 상하지 않게 하려고	-1.3558	-61.90	1.1189
12	내가 상대방을 만나고 싶어서	-1.7057	-.0900	.0629	47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된 일이 있어서	.1291	-.6886	1.1254
13	상대방의 성격 때문에	1.1197	-.9612	-.5640	48	상대방이 용서를 빌어서	-1.1317	-.9253	-.3597
14	두 사람이 서로 싸워서	1.3716	-.3805	-1.2020	49	내가 두 사람과의 관계를 감추려고	1.0606	-.6253	.6364
15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9997	1.6136	-.0721	50	일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0659	1.7842	.0493
16	나의 성격 때문에	6124	.3907	1.5036	51	그 행동을 하는게 즐겁기 때문에	-1.3359	.9341	1.1381
17	내가 상대방과 헤어지지 않아서	-1.6453	-.2315	.2566	52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기 때문에	8084	-1.4160	.5921
18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해서	1.3603	-1.3786	-.2685	53	내가 상대방의 관심을 끌려고	-1.3439	-.3492	.5243
19	두 사람이 서로 돕기 위해서	-1.3925	.4917	-1.1667	54	두 사람이 서로 자라는 환경이 달라서	1.3145	.0064	-.9864
20	주위사람이 상대방을 싫어해서	1.6791	-.0629	1.239	55	시간 때문에	.9941	1.7786	-.1118
21	나의 자존심 때문에	1.1167	-.2100	1.3342	56	내가 상대방에게 불만을 느껴서	.8946	-1.1897	1.982
22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1.5491	-.5961	.3043	57	내가 상대방과 헤어지려고	.8583	-1.2173	.3799
23	상대방이 잘못해서	1.2197	-1.4188	-.3287	58	두 사람이 사귀지 얼마되지 않아서	.6496	.6292	-1.3144
24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해서	-1.5647	-.0327	-1.2429	59	두 사람 상호 간의 이해가 부족해서	1.2217	-.2003	-1.2379
25	두 사람이 모두 관심있는 사건이라	-.8506	1.1109	-1.1646	60	돈 때문에	.9109	1.7391	1.1046
26	나의 습관 때문에	1.1858	.4987	1.2592	61	내가 상대방에게 열등감을 느껴서	.7251	-.8886	1.1434
27	내가 상대방이 걱정되어서	-1.5623	-.5343	.5171	62	내가 상대방의 도움을 청하려고	-1.1446	.2269	.9654
28	상대방의 능력 때문에	.4862	-1.1338	-.3989	63	두 사람의 선호 혹은 취향이 같아서	-1.0717	.3846	-1.1814
29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1.5460	.0340	-1.1094	64	두 사람 모두 상대방에게 실망해서	1.4168	-.5677	-1.1147
30	운 때문에	.7993	1.7820	.3427	65	두 사람이 모두 노력했기 때문에	-1.2003	.2975	-1.1846
31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1940	-.3010	1.4007	66	상대방에게 나를 과시하고 싶어서	-.3948	-.4674	1.4768
32	내가 상대방을 돕고 싶어서	-1.5931	-.3295	.3741	67	내가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고	-1.6364	-.3467	.3333
33	상대방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므로	1.6461	-1.0761	-.0316	68	두 사람이 성격이 서로 달라서	1.3286	-.3211	-.9986
34	두 사람이 서로에게 사랑을 느껴서	1.5446	-.6601	-1.1100	69	두 사람이 모두 미워서	1.0645	.9350	-.9376
35	두 사람이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서	1.0405	.8120	-.9693	70	내가 상대방에게 보답하려고	-1.5077	-.3928	.5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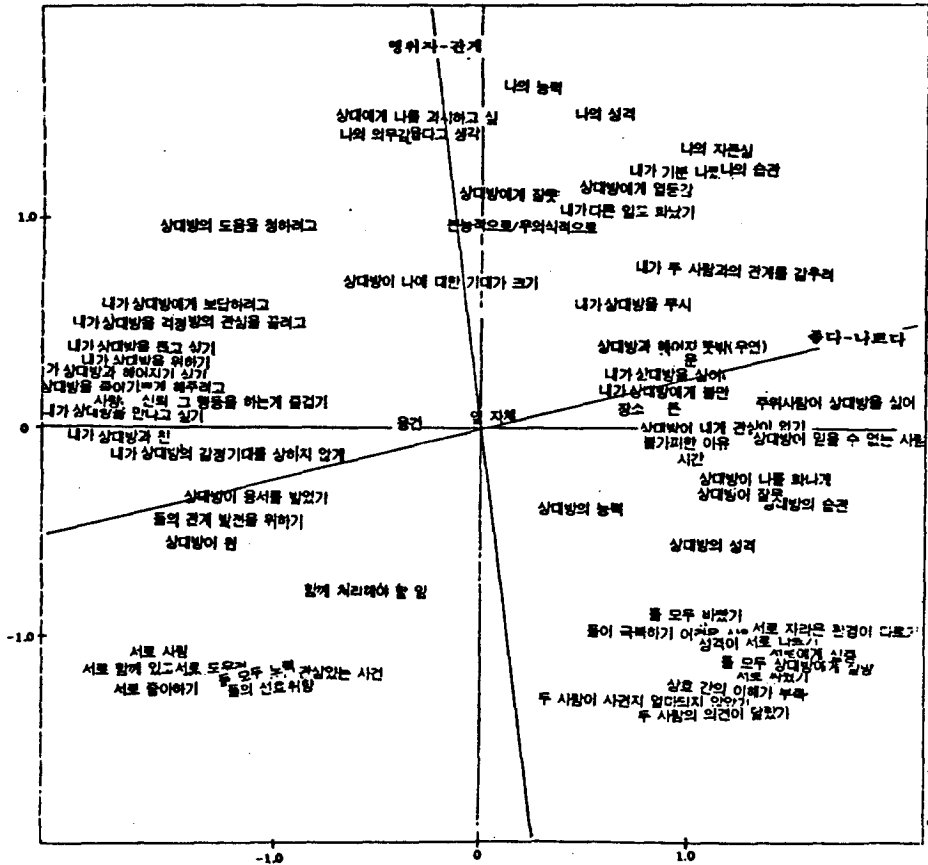


그림 3. 제 1차원(수평) 및 제 3차원(수직)에서 설명 용어들의 위치

각 차원에서의 좌표를 예언 요인으로 하여 중다회귀 분석하였으며, 얻어진 회귀 계수를 토대로 각 차원의 축을 그리고 이에 따라 차원을 해석하였다.

그림 2를 보면, 제 1차원의 부정 극단에는 상대방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므로, 두 사람이 서로 싫어져서, 두 사람 모두 상대방에게 실망해서,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해서, 상대방이 잘못해서, 상대방의 습관 때문에, 주위 사람이 상대방을 싫어해서 등이 위치해 있으며, 정적 극단에는 서로 함께 있고 싶어해서, 서로 돕기 위해서, 상대방과 친하니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서로 좋아해서, 두 사람 간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 그 행동을 하는게 즐겁기 때문에 등이 놓여 있다. 양극에 놓여 있는 용어들로 미루어 볼 때, 제 1

차원은 행위자, 상대방, 및 양자 관계 자체가 좋거나 나쁘다고 평정한 내용들이다. 그러므로 제 1차원은 좋다-나쁘다 (good-bad)를 나타내는 평가적 태도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상대방에 대한 호감/오감이 부정적 행동을 유발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귀인 차원이라고 보고한 Passer 등 (1978)의 연구 결과와 일치된다. 또한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귀인을 다룬 여러 연구들에서도 양자 관계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불만족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긍정적/부정적 행동에 대하여 다르게 귀인한다는 연구 결과를 볼 수 있다 (예, Fincham, Beach, & Nelson, 1987b; Fincham & O'leary, 1983; Holtzworth-Munroe & Jacobson, 1985; Jacobson, McDonald, Follette, & Berley, 1985).

서 등이 놓여 있다. 양극에 제시된 귀인 용어들로 볼 때, 제 3차원은 행위자-관계 (actor-relationship 혹은 행위자-양자)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차원의 의미를 요약해 보면, 대체로 1차원은 좋다-나쁘다 (평가적 태도), 2차원은 사람-자극 혹은 사람-상황, 3차원은 행위자-관계/양자로 볼 수 있다.

군집분석과 다차원분석 결과의 비교

그림 2, 3, 4에 나타난 다차원분석 결과와 군집분석 결과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대체로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제 1차원 (수평)이 배열된 그림 3에 좋은 태도 군집과 나쁜 태도 군집으로 묶인 귀인 요인들을 위치시켜 살펴본 결과, 좋은 태도-나쁜 태도로 묶인 군집분석의 결과가 대체로 다차원분석의 결과와 일치됨을 알 수 있다. 단, 자극 범주 가운데 상대방의 도움을 청하려고,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등은 군집분석 결과에서는 나쁘다 범주에 묶인 용어들이었으나, 다차원분석 결과에서는 좋은 태도 축 상에 위치해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군집분석 결과 설명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 용어들은 자극 군집에 소속된 다른 설명 용어들의 영향으로 '나쁘다'라는 상위 군집에 묶인 듯하다.

제 2차원 (수직)인 사람-자극 차원이 배열된 그림 2에 군집분석 결과에서 얻은 사람 군집과 자극 군집으로 묶인 귀인 요인들을 위치시켜 보면, 자극 극단에 자극 군집이, 사람 극단에 상대방, 상대방 희망, 행위자의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나타내는 군집이 배열됨을 볼 수 있다. 이 때 상대방 속성을 나타내는 군집과 상대방에 대한 행위자의 호감을 나타내는 군집은 나쁘다-좋다 축에 의해 대분되어서, 각각 상대방 속성을 나타내는 군집은 나쁜 태도의 극단에, 행위자의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나타내는 군집은 좋은 태도의 극단에 위치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군집분석 결과에서 자극 범주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범주가 사람 속성을 나타내는 용어들이므로, 자극 군집 이외의 용어들이 비록 자극 차원의 극단에 위치하지는 않을지라도 자극 차원 상에 속하게 된 이유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용어들로는 두 사람 모두 관심있는 사건이어서, 그 행동을 하는게 즐겁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바빠서, 두 사람 모두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두 사람이 사권지 얼마되지 않아서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용어들이 중국에는 자극에 귀인 되거나, 상황에 귀인되는 용어들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행동을 하는게 즐겁기 때문에는 그 행동에 대한 즐거움을 갖는 사람 귀인으로도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행위 자체가 갖고 있는 즐거움의 측면에서도 볼 수 있으며, 후자의 측면에서 고려되어 자극 차원 상에 위치한 듯하다.

제 3차원 (수직)으로 해석된 행위자-관계 축을 그려 넣은 그림 4에 군집분석 결과를 위치시켜 보면, 행위자 극단에는 나쁜 태도 군집의 하위 군집인 행위자 범주에 속한 귀인 용어들이 배치되고, 관계 극단에는 관계범주에 소속된 귀인 용어들이 배열됨을 볼 수 있다. 단지 행위자 극단에 위치해 있는 내가 상대의 도움을 청하려고, 본능적/무의식적으로의 두 귀인은, 군집 분석 결과에서는 자극 군집에 속해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 용어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행위자 귀인에 속하는 용어들이라 볼 수 있으므로 행위자 축에 넣어서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을 듯하다. 재미있는 점은 나쁜 태도의 하위 군집에 속한 행위자 군집은 행위자 축 극단에 위치해 있는 반면, 좋은 태도의 하위 군집인 상대에 대한 행위자의 관심 군집은 행위자-관계에 의해 대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나쁜 태도 군집의 하위 군집인 행위자 군집이 대체로 행위자의 특성이나 부정 감정 등 행위자 자신의 원인들이 이루어진 반면, 상대에 대한 행위자의 관심 군집은 행위자가 상대에 대해 지니는 호감이나 관심을 나타내는 대인 귀인 범주의 원인들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 이외에 군집분석 결과, 자극이나 상대방 군집으로 분류된 귀인 용어들도 다차원 분석의 행위자-관계 축에 의해서 대분되지 않음으로서 두 분석 결과가 일치됨을 보여준다.

종합 논의

연구 I과 II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양자 간 대인 관계 상황에서는 개인 행동 상황과는 달리 좋은 태도-나쁜 태도, 사람-자극 혹은 상황, 행위자-관계(양자) 측면에서 행동의 원인과 이유가 설명됨을 알았다. 이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이 되거나 장래 연구에 도움이 되는 몇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I의 결과를 보면, 귀인자의 성별이나, 관계의 유형, 그리고 관계의 진전 정도에 따라서 귀인 내용들이 다름을 볼 수 있는데, 귀인 차원으로 나누어 볼 때에도 이러한 변인들에 따라서 중요시하는 귀인 차원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I에서 관계의 유형(동성/이성 관계)을 대등한 수평 관계에 한정해서 다루었는데, 동성/이성 관계는 다시 상하 관계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 결과가 상하 관계에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연구 I에서 중요하게 지적된 대인 귀인 범주 용어들이 연구 II의 다차원분석 결과에서는 하나의 차원으로 구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행위자-관계 차원에서 대인 귀인 범주에 포함되는 용어들이 한 쪽 극단에 묶이지 않음으로써 대인 귀인 범주 용어들이 행위자 극이나 관계 극에 속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따라서 대인 귀인 범주가 하나의 독립 차원으로 구성되는지를 알아보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연구 II에서 사용된 귀인 용어들은 행위자 입장에서 추출된 용어들이었다. 따라서 얻어진 차원들은 엄밀히 보면 행위자 입장에서 중요시하는 차원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Passer 등(1978)이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부정적 행동의 귀인에 내재된 차원을 살펴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위자 입장과 상대방 입장에 따라서 중요시하는 차원이 일부 다름을 볼 수 있다. 즉 행위자 입장에서는 행위자의 의도-비의도 측면으로,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행위자의 특성-상황 또는 상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 차원

을 얻었다. 그러므로, 상대방 입장에서 행동 귀인을 하게 할 경우에 이 연구의 결과와 어떠한 귀인 차원의 차이가 나타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다차원분석에서 1차원 좌표와 가장 상관성이 높은 좋은 태도-나쁜 태도 척도를 1차원의 해석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행위자의 의도-비의도 척도치와 1차원 좌표와의 상관(0.64, $p < .0001$)도 높았는데, 이는 부정적 행동의 귀인 차원을 다룬 Passer 등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흥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Passer 등의 연구 결과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정적 태도-부적 태도와 행위자의 의도-비의도가 각기 다른 차원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구에 사용된 행동적 사건들을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행동 귀인 차원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 보고된 귀인 차원들이 양자 관계의 지속 여부나 진전 정도,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호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귀인적 접근(Kelley & Michela, 1980)의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차재호 (1986). 귀인이론. 한국심리학회 동계연수회 발표논문집 사회심리학의 전개와 방향, 79-110.
- 차재호·나은영 (1986). 귀인 정보의 합축 정보 연구: 합의성, 특이성 및 일관성 정보간의 상호 합축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3 (1), 17-36.
- 한덕웅 (1982). 대인관계의 행동적 구조: 2인 관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논문집, 제 32권, 143-180.
- 한덕웅 (1985). 우정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종단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산하 사회심리학회 사회심리학연구, 2 (2), 169-192.
- 한덕웅 (1988). 우정관계의 진전과정에 관한 다면·인과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산하 사회심리학회 사회심리학연구, 7, 111-153.
- Buss, A. R. (1978). Causes and reasons in attribution

- theory: A conceptual critiqu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311-1321.
- Fincham, F. D., & O'Leary, K. D. (1983). Causal inferences for spouse behavior in maritally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 (1), 42-57.
- Fincham, F. D. (1985). Attributions in close relationships. In J. H. Harvey, & G. Weary (Eds.), *Attributions: Basic issues and applications* (pp.203-234). Academic Press.
- Fincham, F. D., Beach, S. R., & Nelson, G. (1987b). Attribution processes in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3. Causal and responsibility attributions for spouse behavio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1, 71-86.
- Fletcher, G. J. O., & Fitness, J. (1990). Occurrent social cognition in close relationship interaction: The role of proximal and distal variab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3), 464-474.
- Grigg, F., Fletcher, G. J. O., & Fitness, J. (1989). Spontaneous attributions in happy and unhappy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6, 61-68.
- Harvey, J. H., Wells, G. L., & Alrarez, M. D. (1978). Attribution in the context of conflict and separation in close relationships. In J. H. Harvey, W. J. Ickes, & R. F. Kidd (Eds.). *New directions in attribution research* (Vol.2, pp.235-260). Hillsdale, N. J.: Erlbaum.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 Hewstone, M. (1989). *Causal Attribution: From cognitive processes to collective beliefs*. Basil Blackwell Inc.
- Holtzworth-Munroe, A., & Jacobson, N. S. (1985). Causal attributions of married couples: When do they search for causes? What do they conclude when they do?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6), 1398-1412.
- Jacobson, N. S., McDonald, D. W., Follette, W. C., & Berley, R. A. (1985). Attributional processes in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married couple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9, 35-50.
- Kelley, H. H. (1967). Attribution theory in social psychology. In D. Levine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15).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Kelley, H. H., & Michela, J. L. (1980). Attribution theory and research.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1, 457-501.
- Kruglanski, A. W. (1975). The endogenous-exogenous partition in attribution theory. *Psychological Review*, 82 (6), 387-406.
- Kruskal, J. B. (1964). Multidimensional scaling by optimizing goodness of fit to a nonmetric hypothesis. *Psychometrika*, 29, 1-27.
- Newman, H. M. (1981a). Communication within ongoing intimate relationships: An attributional perspecti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7, 59-70.
- Orvis, B. R., Kelley, H. H., & Butler, D. (1976). Attributional conflict in young couple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354-386.
- Passer, M. W., & Kelley, H. H., & Michela, J. L. (1978). Multidimensional scaling of the causes for negative interperson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9), 349-354.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 (Whole No. 609).
- Weiner, B. (1980). *Human Motivation*. N. Y.: Holt, Rinehart and Winston.

부록 1. 59개의 행동적 사건 기술문

1. A는 B의 잘못을 용서했다.
2. A는 B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3. A는 B가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진 것을 은근히 기뻐했다.
4. 한밤중에 A는 B에게 전화를 하였다.
5. A는 B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했다.
6. A는 다른 사람에게 B의 모든 면을 칭찬했다.
7. A는 B가 빌려 달라는 물건을 빌려주지 않았다.
8. A는 B의 친구들을 좋아한다.
9. A는 B에게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10. A는 어떠한 경우에도 B와의 약속을 지킨다.
11. A가 힘겨운 일을 하였으나 B는 모른척 하였다.
12. A는 B와 사귀는 사실을 부모님께 속였다.
13. A와 B는 시험에 대비해서 공부를 함께 했다.
14. A는 B와 만나서 언짢은 시간을 보냈다.
15. A는 B가 하는 일을 도와 주었다.
16. A는 B앞에서 잘난체를 했다.
17. A와 B는 항상 같은 장소에서 만난다.
18. A와 B는 말하지 않고 지낸다.
19. A는 중요한 일을 B와 상의했다.
20. A의 부모는 A에게 B와 만나지 말라고 했다.
21. A는 자신의 부모에게 B의 취직자리를 알선해 달라고 부탁했다.
22. A는 B가 기대했던 만큼의 일을 하지 못했다.
23. A는 B가 하는 일을 사사건건 간섭한다.
24. A는 B와 커가길에 헤어지면서 계속 뒤를 돌아 보았다.
25. A는 B가 하는 말을 무조건 믿는다.
26. A는 함께 식사하자는 B의 제안을 거절했다.
27. 밤길에 강도를 만나자 A는 B를 두고 혼자 도망쳤다.
28. A는 B와 대화할 때 항상 B의 눈치를 살핀다.
29. A가 도와 주었는데도 B는 시험에서 떨어졌다.
30. A는 B의 건강을 걱정했다.
31. A는 약속시간에 약간 늦은 B를 보자 B에게 심하게 화를 냈다.
32. A는 B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한다.
33. A가 B의 이름을 몇번씩이나 불렀지만 B는 못 들은척 했다.
34. A는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B에게 이야기 하였다.
35. A는 B를 얼마전에 만났는 데도 다시 만났을 때 서먹서먹해 했다.
36. A는 약속장소에서 5시간이나 B를 기다렸다.
37. A와 B는 서로 마주치는 것을 피한다.
38. A와 B는 함께 여행을 떠났다.
39. A는 술에 취해서 B에게 트집을 잡았다.
40. A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B의 실수를 감싸 주었다.
41. A와 B는 정치문제로 격렬히 논쟁했다.
42. A는 B의 생일날이 다가오자 선물을 사러 돌아다녔다.
43. A는 다른 사람 앞에서 B의 행동을 비난했다.
44. A는 B의 선물을 받고 무척 당황해 했다.
45. A와 B는 함께 영화를 보았다.
46. A는 B에게 죽고 싶다고 말하였다.
47. A는 B가 A이외의 다른 사람과 사귀는 것을 싫어한다.
48. A는 B의 물건을 소중하게 다룬다.
49. A는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B에게 무심하게 대한다.
50. A는 B가 한 말을 믿지 않았다.
51. A는 B에게 값비싼 선물을 주었다.
52. A는 B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53. A는 B의 행동에 따라서 기분이 좌우된다.
54. A는 B에게 집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55.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A는 B의 뺨을 때렸다.
56. A는 B와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낀다.
57. A는 B에게 혼자 있고 싶다고 말했다.
58. A는 B가 자신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오해했다.
59. A는 B가 하는 말을 무시했다.

Cause and reason of behavior in personal relationships

Kyung-Seong Lee, Doug-Woong Hahn, and Hye-Ja Kang

Department of Industrial & Organizational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occurrence frequencies of daily terms which people use in explaining causes and reasons for behaviors in personal relationships. Furthermore, dimensions underlying those explanatory terms were analyzed. First, five hundred subjects were asked to describe explanatory terms of causes and reasons for 59 behavioral events that could be occurred frequently in a daily life. Content analysis on these free responses generated 132 explanatory terms and their frequencies differed across subject's sex, types, and phase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those 70 terms were, then, selected with the criteria of the high frequency, independence in meaning, and representativeness for each category. Another group of 66 college students were asked to classify the 70 terms into 10 categories according to the similarity in the meaning. Cluster analysis and multidimensional scaling (ALSCAL) on the similarity data consistently revealed three dimensions (stress=14%). The first dimension was interpreted as good-bad, the second dimension as person-stimulus or situations, and the third dimension as actor-relationship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the subsequent research were discussed.